

[ 종합·해설 ]

총선 격전지

김동철-심재민-송병태 '3파전'

광주 광산구 갑

기존의 광산구 선거구가 이번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면서 새로 탄생한 선거구다.

송병태를 중심으로 하는 광산구 갑은 전통적으로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많아 외부 영입 후보들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통합민주당 소속 김동철 의원과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등이 경쟁하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성에 나서는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활발한 의정생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 차원에서 현역의원을

민주당 김영성씨 등 4명 공천 경쟁 ... 조재현씨도

■광주 광산구 갑 출마 예정자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김동철	52	통합민주당	서울대 법학과 졸업	17대 국회의원
김영성	59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서울신문 차장
송병태	69	-	전남대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졸업	민선 2·3기 광산구청장
심재민	54	-	한양대 경제학과 박사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조재현	47	한나라당	건국대 행정대학원	광주시당 부위원장
조삼수	44	민주노동당	송의실업고등학교	전 민주노동 광주전남본부장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쁜 지 않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손학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다는 점이 선거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심 전 부시장은 이에 맞서 '능력있는 정책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공

세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광양군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심 전 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바둑 민심을 다져 왔다.

심 전 부시장은 특히 인사비리나 측근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표밭공략에 나

서고 있다.

송 전 구청장은 민선 2기와 3기 광산구청장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기여도와 함께 탄탄한 지역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권에 근접할 정도라는 게 정치관계자들의 평가다.

김영성 전 서울신문 차장도 통합민주당 후보로 뒤늦게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재현 광주시당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중앙당이 호남지역 선거구 대부분을 전락공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후보로 결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에선 조삼수 전 민주노동 광주전남본부장이 표밭공략에 나서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주공산 주인은 나” 대접전

광주 광산구 을

광산구 을은 새로 생긴 지역구로서 정치 신인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전직 장관·청와대 비서관·시인 등 경력도 다양한데 일부는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전남대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국세청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장관은 시의원·기초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조직력을 넓혀가며 “참여정부의 공과를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도덕성과 다양한 국정 경험, 전문성 등이 지역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게 자체 평가다.

198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승남 예비후보도 5대 거품배기 광

전직 장관·청와대비서관·시인 등 신인들 각축

■광주 광산구 을 출마 예정자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김승남	42	통합민주당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198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후섭	59	-	조선대 대학원 경영학과	전 노동일보 대표이사
나병식	59	-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민주개혁 국민연합 상임 집행위원장
남병오	47	-	전남대 사학과 졸업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민형태	47	-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과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이영진	52	-	우석대 국어국문학과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단장
이용섭	57	-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산구 상임대표로 지역민들과 밀착해 온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인물론을 기치로 지역 표밭에 호소하고 있다. 분당, 합당의 정치 상황에서 소신을 갖고 민주당을 지켜온 점, 박상천 대표 보좌관을 지낸 인연 등이 공천을 따내는데 유리하지 않겠

느냐는 자체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형태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호소하고 있다. 분당, 합당의 정치 상황에서 소신을 갖고 민주당을 지켜온 점, 박상천 대표 보좌관을 지낸 인연 등이 공천을 따내는데 유리하지 않겠

또 10년 넘게 광산 지역에 살아오면서 파악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 활동을 했던 이영진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도 문화인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재직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남병오 '비전한반도포럼' 공동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중 정치를 통해 강력한 야당 건설에 한 몫을 하겠다고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나병식 풀빛출판사 대표도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공천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로 민심을 높이고 있고 김후섭 전 노동일보 대표는 '토박이론'으로 첨단 지역 발전을 챙기겠다고 얼굴 알리기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4·9 총선 현장

양형일 의원 교수 135명 저문단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전남대·조선대 등 교수 135명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 양 의원은 “정책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지병문 의원 재래시장 상인들과 만남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2일 지역 재래시장을 찾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 지 의원은 이날 무등·봉선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재래시장 리모델링이나 주차장 확대 등 시설 개선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다짐.

지역 택시노조 장병완 지지 선언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지역기업별택시노조 등은 2일 장병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 후보는 호남 소외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박주선 “무등산 세계적 관광명소 개발”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가 2일 친체한 동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등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등산 일대를 지식유원지 권역과 중심사 권역, 예술의 거리 권역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특화된 관광명소로 조성, 동구 경제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김영룡 광주 서구 을 선거사무소 개소



○김영룡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오는 4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밭공략에 나설 계획. 김 후보는 “국방부 차관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마북동 공군단약과 이천문제를 확실하게 결말짓겠다”며 “10만평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교육·문화·의료복합단지 조성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삼겠다”고 약속.

김영록 해남읍에 선거사무소 열어



○김영록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해남읍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공략에 돌입. 김 후보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인구가 18만에 이르는 큰 선거구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시·군 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전남 행정부지사를 지내 도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이승채 '3·1만세 운동 재현 행사' 참석



○이승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광주 3·1만세 운동 재현 행사에 참가,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등 민심 공략에 주력. 이 변호사는 이날 “3·1절이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

서갑성 남구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제안



○서갑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일 남구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공개 정책토론회를 제안. 서 후보는 이날 “남구 지역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일자리 창출 ▲젊은 교육 환경개선 ▲주거 환경 개선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간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

김승남 '풍영배구클럽' 체육활동



○김승남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광산구 신가동 풍영초 체육관을 방문, '풍영배구클럽' 회원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는 등 표밭공략에 분주. 김 후보는 클럽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이 크게 확충되어 시민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정재훈 '노블리스 클럽' 공약



○정재훈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하나로 '노블리스 클럽(noblesse club)'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 정 후보는 “성공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솔선수범해 환원해야 한다”며 “노블리스 클럽은 이같은 정신과 실천을 지향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

/홍행기자 김지용 기자 redplane@kwangju.co.kr

40년 전통!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본인출신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3월 3일 **광주고시학원** 327-0001

2008년 (제6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1. 접수일정: 3월 3일 ~ 3월 10일

2. 시험일정: 3월 15일

3. 시험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

4. 접수처: 한국한자학원

2008년 국가직(제7기) 공무원시험 거점시험이 한빛학원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 공무원 합격 압도적 위**

79-이론반, 80-문제풀이반, 81-전과목 단과반

**3월 3일**

**한빛공무원학원** 한빛어학 연구소